



# 보험산업의 위험관리 기술풀로서 정착해야

화재 예방과 소화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이에 대한 연구·계몽을 목적으로 1973년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는 방재업무의 활성화와 방재기술의 향상을 통하여 알게 모르게 우리 보험업계는 물론 우리나라 다른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더구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선진국에 비하여 손색이 없는 방재시험소를 설립함으로써 방재연구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어 火協의 활동에 기대되는 바 적지 않다. 이러한 시점에서 화협설립 14년을 뒤돌아보는 새삼스러운 감이 있으나 火協과 오랫동안 직접 간접으로 관련을 맺어온 본인으로서는 뜻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안전점검에 대하여 업계의 입장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火協은 점검업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화재 예방에 기여한 바가 크다. 설립 초기에는 건물의 화재 발생 요인, 안전관계의 기준 미달 및 방재시설 등



박 정 의  
〈동양화재보험(주)·화재특종  
업무부장〉

의 불량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불량시설을 개선토록 한 결과, 설립 초기인 1974년에는 25%에 불과했던 방재시설의 양호율이 1985년 말 현재 79.9%로 개선되어 점검업무 실시 이후 11년동안 무려 54.9%의 방재 시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방재 시설의 양호율이 높아지면, 화재 발생 요인이 그만큼 줄어들 뿐만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조기경보, 초기

소화등이 가능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火協이 10여년동안 특수건물을 대상으로 방재활동을 실시하여온 결과 특수건물의 손해율이 전체 손해율 (특수건물포함)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결과로 1981년에 이어 1984년 2차례에 걸쳐 특수건물에 대한 요율을 일정률 할인하여 주는 “특수건물 요율할인제”를 택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火協의 방재활동은 간접적으로 비특수건물 및 다른 물건에도 영향을 미치어 요즘 새로 짓는 건물들은 대부분 방재시설이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로 火協의 점검 업무는 화재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케 하였다. 화재 위험 사항을 점검하여 그 개선 사항을 건물 소유주에게 알려서 스스로가 위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기 건물의 미비사항을 개선하도록 유도하

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에게도 여러가지 행사를 통하여 화재의 위험성과 이로인한 재해가 얼마나 큰가를 홍보함으로써, 화재 위험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크게 달라지게 한 것도 火協의 공로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로, 우리나라 위험관리 업무의 선구자가 되었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산업사회에 내재하는 위험의 규모와 빈도가 과거보다 엄청나게 커지고,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위험이 출현됨에 따라, 구미 선진국에서는 위험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발견, 분석, 처리하여야 한다는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모든 업계에 대두하게 되었으며, 특히 원보험자 및 재보험자등 보험업자들이 중심이 되어 위험관리 용역을 제공하여 왔고, 손실의 통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벌여왔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손해보험의 위험측정과 보유규정을 제정하여 내실을 기하고 경영체제를 모집위주에서 underwriting 위주로 전환하게 유도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손해방지 및 보유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위험관리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고, 각 보험회사에서도 위험관리팀을 설치운영하여 위험관리에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볼때 火協은 일찌기 위험관리 업무를 목표로하고 업무를 시작하여 이를 체계화하고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그간 위험관리분야에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배출시켜 업계를 비롯 관련산업의 위험관리 업무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인이 1978년 영국 Manchester 에 있는 British Engine에서 연구중에 동사의 위험관리 시설 특히 non-destructive test, laboratory, quality test 시설 등을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은 바 있었는데, 지난해 9월 火協 방재시험소를 들러 볼 기회가 있어 구석구석 자세히 보면서 비교해 본 바, 결코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 마음 속으로 자랑스럽게 느낀 바 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밖에 고액택 금융물건을 위시하여 부보 물건에 대한 위험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각사에 제공함으로써 각사는 이에따라 위험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적정한 보유를 통한 국제수지개선 노력에 一助를 하는 등 업계의 발전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이상 화협이 14년의 길지않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 놓은 성과를 살펴 보았으나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없는 바 아니어서 이 기회에 화협의 발전을 위해 평소 느꼈던 사항을 말해 본다.

우선 火協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깊이 있고 전문적인 방재기술을 개발 연구하여 이를 업계에 보급하는 산실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날의 산업구조가 전문화 및 다양화로 산업구조의 대변혁을 가져왔고, 이를 일컬어 “3차 기술 혁신”이니 “정보, 기술 혁명”이니 또는 “신산업혁명”이라고들 한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화에 뒤따르는 위험에 관한 고찰도 함

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이방면에서 火協이 leader가 되고 업계와는 더욱 가까워져야 되겠다. 그동안 축적된 많은 기술 및 자료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그만큼 업계와 거리가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따라서 기업의 위험관리, 보험자에 의한 위험관리 서비스, 보험산업의 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의 기술풀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방재시험소를 방문한 후에야 시설등 모든 것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때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안타까웠다.

아울러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화재 위험에 관하여서만 기술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Engineering 을 비롯하여 자동차까지도 확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화협의 연구와 개발 등 더욱 활발한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요망사항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줄곧 화재 및 특종보험 업무에 종사하면서 항상 화협과 가까이에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 보았기 때문이다.

작금의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환경을 살펴 볼때 선진국으로부터 시장개방 압력등 어려운 점이 많으나 이는 업계 스스로 끊임없는 자기 계발로 극복 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더욱 가치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사회에 기여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